

완도군,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2관왕

최우수상에 바하 정원, 우수상에 아내의 정원 수상

완도군의 2개소 정원이 전라남도가 주최한 '2025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생활권 정원과 개인 정원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콘테스트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40개 정원(개인 정원 28개소, 생활권 정원 12개소)이 참가해 치열한 심사 끝에 우수 정원 10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완도군에서는 '바하 정원'이 생활권 정원 부문 최우수상, '아내의 정원'이 개인 정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바하 정원'은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고 펜션, 카페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 공간으로 '자연과 교감을 통한 치유를 철학으로 정원이 조성됐다.

정원에는 다양한 수목은 물론 폭포와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연못, 고산수식 모래 정원, 중국 태호석 등 이국적인 요소와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인근 구계등 풍경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공간으로 평가받았다.

'아내의 정원'은 10년 전 전원생활을 시작하며 남편이 아내를 위해 손수 조성했으며, 100여 종의 꽃이 사계절 내내 피고 저 정원 전경은 아름다운 동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숲속 오두막과 장작 화덕, 수영장을 개조한 연못, 텃밭 등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들도 곳곳에 마련됐다.

최근 생활문화센터 내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내내 자연의 푸르름을 즐길 수 있게 했으며, 공기 정화와 심리적 안정 효과로 아이들 정서적 발달 및 생태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간 정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면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정원 문화가 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양수영장, 초·중·고등학생 대상 수영특강반 운영

6개 반 120명 모집... 7월 28일 개강

광양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3주간 광양수영장에서 '2025년 여름방학 수영특강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초급반 80명, 중급반 40명 등 총 120명을 6개 반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은 매주 평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반별 50분씩 진행된다. 단, 반별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으며 수영 수준에 따라 반 편성이 변경될 수 있다.

강습은 수영을 처음 배우는 학생을 위한 초급반과 자유형이 가능한 학생을 위한 중급반으로 나뉜다. 물 적응 훈련과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생존 수영 교육은 모든 반에 공통 적용되며, 초급반은 기초 동작인 발차기부터, 중급반은 영법교육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체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7월 9일부터 17일까지 광양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선착순이 아닌 PC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접수 시 사전 대기나 줄서기는 불필요하다. 추첨일은 7월 18일이며, 오후 1시 10분부터 30분간 진행된다. 강습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회원으로 등록하고 강습료(3만 5천 원)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의 수질 관리를 위한 휴게시간이며, 매일 첫째, 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으로 강습이 진행되지 않는다. 특강반 학생들은 강습이 진행되는 3주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별도 입장권 없이 자유 수영 이용이 가능하다.

박순옥 광양시 체육과장은 "이번 여름방학 수영특강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과 긍정적인 체육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기초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 함평군이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지원금 700만 원과 함께 최대 1억 원 이내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20일(금)까지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함평 청년스트리트 조성 사업' 참여자 2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함평 청년스트리트 조성사업'은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1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빈 점포 등 지역 유휴 시설을 새로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함평 관내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만 49세(1975년생) 이하 청년으로,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연 매출 1억 2천만 원(월 매출 1천만 원 이상) 이상인 기창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폐업 또는 리

함평군, 청년 기창업자 2명 추가 모집... 이달 20일까지

모델링 할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6월 20일까지 방문(함평군 합평읍 중앙길 164, 3층) 또는 전자우편(hpjobs@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발표 평가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자에게 창업지원금 700만 원과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지사, 취약계층 수도요금 지원

장흥군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지사(지사장 장성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나눔 행복두배 프로그램'을 통해 62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 예산과 장흥수도지사 직원들의 자발적 급여 모금을 통해 기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 97가구에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원함에 이어 올해는 규모를 늘려 137가구에 6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흥군에서는 기존에 군에서 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아닌 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137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8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장성군-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유희지에 '도시숲' 조성

장성군이 17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김준영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총 12억 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남장성분기점 램프구간)에 이팝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도시숲은 차량 매연과 분진을 차단·흡착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탄소 저장,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장성/황혜연 기자

구례군,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전환 촉구 결의문 채택

전남 구례군 식품접객업계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 구례군지부는 지난 6월 9일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홀에서 열린 '2025년 식품접객업자 기증사업자 위생·친절 교육' 행사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례지역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자 370여명이 참석했으며, 표창장 수여와 함께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친절서비스,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회복,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현실적인 케이블카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 KEPCO